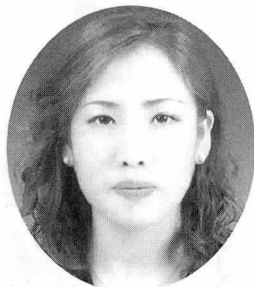


▶ 발간사 ▶

우리 산업간호의 종착역은 희망입니다



김경자

인천 지부장, 엠코코리아 보건관리자

안녕하십니까?

한창 물오른 색색의 꽃들과 부드럽게 몸을 휘감는 훈훈한 봄 바람에 단 하루의 일상조차 무심히 보내기엔 모든 것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봄날을 산업 현장에서 맞이하는 것도 올해로 11번째, 제가 산업간호와 인연을 맺은 지도 햇수로는 어느덧 1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철모르고 시작한 간호사 생활의 총 기간이 15년인 것에 비하면 이 12년이라는 산업장에서의 시간은 제 15년 간호인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여도 과연 아닐 정도로 제겐 단순한 직장생활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던가요?

그런 의미 심장한 10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이곳 산업장에서 산업간호사로서 경험한 소중한 값진 시간들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시간을 잠시 추억하고자 합니다.

입사초기엔 보건관리자의 생소한 직무 자체가 낯설고 어려워 곳곳의 교육이란 교육은 빠짐없이 찾아다니곤 하였습니다. 또한 하염없이 부담스럽기만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규 하나하나를 찾아보며 보건관리자가 해야 할 일들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늘 고민했고, 행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위 산업간호 선배님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전해 듣고 나름대로 우리 산업 현장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로 일을 시도해보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뭔지 모를 부족함과 불안감에 갈등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번씩 공공기관의 감사라도 받을라치면 그 긴장감 또한 어찌나 크게 느껴졌던지... 그때의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한 순간씩 아찔할 때가 있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산업간호사들의 일들은 그간 우리가 임상에서 의료인으로 해왔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찾아해야하는 자율적인 성격의 업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산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산업간호사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그나마 산업간호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외로운 자리이기에 이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산업간호사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이런 힘든 곳에서 10년, 아니 그 이상 장기 근속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산업간호 후배들이 그나마 든든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산업간호 분야에서 일찍이 자리잡고 터를 일궈주셨던 선배님들의 노고가 계셨기에, 그리고 그 선배님들의 업무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지원되었기에 오늘의 산업간호가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전문간호사 배출이라는 뜻 깊은 성과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기뻐하며 축하했던 그때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부디 그때의 감동이 일회성이 아닌 해를 거듭하며 반복 재현되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동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더불어 오늘의 산업간호가 자리하기까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산업간호를 몸소 실천하는 전국의 선후배 산업간호사들에게 그간 우리 산업간호의 공로를 함께 나누자고 청하며 앞으로도 더욱 탄탄하고 내실 있는 산업간호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중심 축에 자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힘차게 파이팅을 제안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업간호사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산업간호의 종착역은 희망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